

TV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영상구성과 서사구조에 관한 연구: <스캔들>의 내용 분석으로 중심으로

함 현^{1*}

A study on the TV reality show program's visual format and narrative structure

:its an analysis of TV program's with 'Scandals'

Hyun Hahm^{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현상을 살펴보고, 케이블 TV 프로그램 <스캔들>의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특성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TV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 <스캔들>에 나타나고 있는 제작 방식은 다양한 장르의 특성이 결합된 새로운 시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그 저변 확대에도 불구하고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이 방송의 공영적인 책무를 무시한 선정적이고 관음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오락의 대상으로만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은 텔레비전의 저급문화가 확산되는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게 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the reality show program spread into global with a variety effects on social and cultural phenomenon, and textual analysis of TV reality show program 'Scandals' with a specific status. As a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V reality show program 'Scandals' involves in a characteristic and a diversity of TV genre. On the other hand, textual analysis of TV reality show program 'Scandals' is about understanding the situation which create meaning in TV industry with a negative aspects of phenomenon. More over, TV industry creates lower cultural aspects of situation relate in someway to the target audiences to whom they are aimed.

Key Words : TV reality Show program, 현장성, 관음증, 현장고발

1. 서론

최근 리얼리티 프로그램 장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시에 오락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선정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불구하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의 변화된 포맷은 다큐멘터리의 '관찰양식'과 쇼 프로그램의 '오락적인 요소'를 가미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선정성으로 치우치고 있는 비

현실적인 소재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는 장르의 소재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에 따른 파장 효과는 사회문화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야기 시키기도 하고 있다. 리얼리티의 소재는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남자친구의 외도와 성매매 현장, 불륜 현장과 버려진 가족의 이야기 등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차원을 넘어서 선정성과 관음증, 그리고 자극적인 내용이 난무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리얼리티의 소재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 되는 것이다. 또한 기준에 다루기 힘들었던 비현실적인 소재도 거침없이 텔레비전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결국 리얼리티의 본질은 점점 퇴색되고 변질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제작 방식에 따른 개선점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파급효과에 따라 사회문

이 논문은 2006학년도 청운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¹청운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신저자: 함 현

화적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미 해석은 다양하다. 이종수(2004)는 비현실적인 소재를 대상으로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즉 관음증, 가학증, 인권 침해, 천박하고 잔인한 오락을 소재로 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1]. 또한 최근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특색은 사적 공간에 끌어들이는 감시 카메라, 실제 상황의 현장감, 일반인의 등장, 기존 오락 TV 장르(쇼 오페라, 토크쇼, 게임쇼)를 혼합한 드라마적인 구성의 포맷을 강조 하고 있다[2].

다양한 볼거리를 찾는 시청자,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역할은 대체적으로 관습적인 공식 또는 규칙에 따른 제작 방식이 변하여 상징적인 약호(codex)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른 약호의 상징적인 작용은 시청자에게 바라봄의 방식, 즉 해석적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적 구성형식에 따른 차별화된 형식의 접근 방식을 허용해 시각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 케이블 TV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TVN 독고영재의 현장르포 <스캔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평균 3~5%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여 동일 시간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능가하고 있는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스캔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현장 고발 중심의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의 사회문화적 현상의 특성과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 장르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TV 리얼리티에 대한 논의

2.1 TV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해석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킬본(Kilborn)의 해석은 개인이나 집단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실제 사건을, ENG나 홈비디오 카메라를 이용, 극화하여 재구성 하되, 리얼리티 효과나 오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3]. 이와같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사실적인 소재를 근간으로 현장감 있는 내러티브 전달 방식에 의한 수용자와의 일치를 이루며, 내러티브 전달 방식은 주체와 대상과의 간극을 최소화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TV 리얼리티가 표현하고 있는 인간의 정신세계는 현실성 반영의 자기 성찰적 입장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수(2004)는 TV

리얼리티에 대해 외부 세계의 현실을 반영, 재현하는 리얼리티이면서, 동시에 텔레비전이 독자적으로 파생시킨 새로운 차원의 리얼리티를 모두 포함하는 메타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4]. 이와 같이 TV 리얼리티가 다루는 소재와 내용은 무엇보다도 투명성을 근간으로 제작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TV 뉴스를 통한 서해대교의 교통참사 사건, 스포츠 경기의 실황중계 등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최소화의 가공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묘사되는 현장성 중심의 리얼리티를 표현하는 것인 표면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최근 TV 리얼리티가 지향하고 있는 형식은 쇼의 장르적 특성에 따른 오락적 요소가 가미되어 그 대상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른 김예란·박주현(2006)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사실과 허구의 재현 양식을 혼용함으로써(혼중성) 현실의 변화를 야기하고, 그 변화의 과정과 효과를 이벤트로 구성하고 전달하여(현장성), TV 프로그램과 대중의 상호소통 효과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구분하고 있다[5]. 최근 TV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소재와 내용은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과거 TV 리얼리티 소재가 현장감과 생동감을 전달하던 것에 반해, 금기시 되었던 소재와 내용이 거침없이 극화되고 재구성 된다는 점이다. 애인의 성매춘 이야기, 가정을 버리고 타락한 성문화 이야기 등과 같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극화하여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함으로써 그 경계의 간극은 세상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주체인 동시에 우리 일상의 삶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TV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와 내용은 과거 TV 방송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저급문화, 즉 하위문화를 배양한다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2 다이렉트 시네마 ‘관찰양식’을 표방한 TV 리얼리티의 속임수

다이렉트 시네마의 중심역할에 기여한 한 미국의 마일즈 형제(Maysles Brothers)와 와이즈먼(Fred Wiseman)의 관찰적 접근 방식은 생생한 현장을 방해받지 않고, 사건의 직접성을 포착 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사용하고, 눈앞의 일들이 중요한 순간을 드러낼 때까지 곁에서 기다리는 것이다[6]. 최근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의 구성형식은 위와 같은 다이렉트 시네마의 관찰적 접근 방식을 이용한 카메라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상에 대한 관찰에 있어서 카메라의 거침없는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TV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의 팔목할 만한 특성이다.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이 표방하고 있는 관찰적 접근 방식은 다이렉트 시네마의 관찰양식을 표방한 듯 보이고 있으나, 사실 현장의 상황을 극화하고 재구성하여 교묘하게 연출되어진 표현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몰래 카메라를 활용한 카메라의 무한지대 조성에 대한 그 심각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과거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담아 내었던 리얼리티의 본질이 무색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상업적이고 오락적인 요소가 가미된 쇼 형식의 포맷으로 거듭 발전하고 있는 것이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의 현 상황이다.

또한 상업적 콘텐츠로서 성공적인 사례를 거두고 있는 현장고발 중심의 리얼리티의 소재 확산은 수용자의 몰입을 유도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케이블 TV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리얼리티의 프로그램들은 쇼 형식을 가미한 재미를 더하고 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동시에적으로 사실적인 내용과 연출되어진 부분의 정교한 표현 방식은 수용자와의 상호텍스트적인 프레임을 연결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에코(U. Eco)는 상호텍스트적인 프레임은 독자들에게 환기되는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다양한 프레임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상호텍스트적인 단서를 제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스토리와 인물에 대한 추론을 이끌어내도록 하고, 텍스트에 존재하는 간격과 간극을 매우고 해석의 방향을 지정해주며 그것에 권위를 부여한다고 말하고 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상반된 평가는 비록 상호텍스트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스토리와 인물을 이끌어가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수용자와의 상호텍스트적인 관계의 유지는 정교한 연출에 의해서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2.3 리얼리티의 심리적 작용: 관음증으로 이어지는 ‘시선’과 ‘응시’의 쾌락

TV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의 전 세계적 확산 흐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은 인간의 내부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시선’과 ‘응시’의 형태로 인간의 대립적인 양면성을 최대한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관음적인 인간의 호기심은 쾌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주연(2000)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성공적 요인은 관음적인 호기심과 쾌락이 강조된 요소에 의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폐쇄된 공간 안에 갇혀진 인물들을 엿보는 즐거움을 자극하고,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장치들의 교묘한 혼합을 통해 ‘보기와 보이기’의 역학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8].

또한 TV 리얼리티의 관음증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끊임없는 시선은 적극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쾌락의 대상으로 강조되고 있다. 존 A워커는 시선은 이미지를 향한 관객의 시선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를 지각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각 개인의 차이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각적 미디어가 매력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을(남에게) 보여주지 않고도 우리 마음의 진의를 주시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9]. 또한 이러한 ‘시선’과 ‘응시’를 주제로 한 내용들은 타인의 삶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 타인의 삶에 대한 호기심은 자신의 삶을 전시하고자 하는 욕구를 유발하며, 이때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 경험은 그 욕구를 대리만족할 수 있는 쾌감을 안겨준다[10].

더욱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관음증으로 이어지는 시청자의 ‘시선’과 ‘응시’의 개념은 훔쳐보기의 젠더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 어두운 극장에서 관객이 스크린을 통해 응시하는 즐거움에 비해, 독려-촉진 장치를 통한 대중적 욕망이 적극적이고 화려하게 전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정교한 장치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11]. 또한 TV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선’과 ‘응시’의 개념은 훔쳐보기, 즉 관음증으로 이어지는 시선 끌기의 관습적인 역할을 주도 한다. 관음증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라보는 쾌락인데, 가학적이지는 않더라도 강력한 위치를 함축적인 부정적 의미를 수반한다[12]. 이렇듯 인간의 시선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사물을 그것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대상과 관계 지음으로써 인식하게 된다[13].

TV 리얼리티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 전시 욕구와 엮이는 응시의 즐거움이 연결고리를 이루며 리얼리티 TV의 은밀하면서도 공개적인 이중적 쾌락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14]. 그러나 이렇게 표출된 인물의 묘사적인 측면은 일반 대중의 등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저급성의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또 다이렉트 시네마의 관찰적 양식을 표방한 리얼리티의 포맷은 ‘감시’와 ‘대면’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시청자의 훔쳐보기를 통한 관음주의적 호기심과 쾌락을 정교하게 연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존 버거(1972)의 저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우리 모두는 보여지지 않고도 볼 수 있는, 몰래 들여다보기 혹은 훔쳐보기의 쾌락과 친근하다고 말하고 지적하고 있다. 즉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 시선을 준다는 말이며, 시선을 준다는 것은 선택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행위의 결과 우리가 바라본 사물이 우리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15].

2.4 TV 리얼리티의 수용과 영향

현재 미디어는 하나의 산업문화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디어 문화의 산업화는 대량생산을 모델로 하여 조직되어 있고, 대규모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유형(장르)별로 제작되며, 관습적인 공식과 코드 그리고 규칙이 뒤따른다[16].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전 세계적 확산과 현상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대량으로 생산된 미디어의 제작물이 미치는 수용과정이다. 또한 이러한 수용과정이 저급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도경은 미디어 제작물의 수용 과정을 미디어적 리얼리티를 지각하는데 미치는 수용자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17]. 첫 번째, 일시적 요인으로 특정한 지각이 사건과 관계가 있고 뒤따르는 지각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다시 바뀔 수 있다고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들의 상황을 설명한다. 미디어 수용자가 지각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시청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미디어의 우발적인 표지들이 특정한 주의와 관심을 끄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수용자의 다양한 감정적 요인과 상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둘째, 개인적 요인의 다양한 심리작용과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 즉 기호와 성향에 따른 반응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더글라스 켈너가 구분한 유형(장르)별로 제작 되고 있는 미디어의 관습적인 코드와 규칙은 수용자의 반응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리얼리티가 다루고 있는 거침없는 소재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은 다양한 심리작용으로 표출되고 있다. 즉, 수용자의 개인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관찰양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좀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특성을 통한 수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소재와 내용은 리얼리티의 다양한 표출을 통해 수용자와의 상징적인 약호(code)로 드러나고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해 개인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으며, 미디어의 수용 과정이 사회적, 문화적 현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특성은 다른 문화권에 대한 특수성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즉, 다른 문화권에 대한 문화적 할인은 격차가 최소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작 되고 있는 리얼리티 소재의 프로그램은 복잡한 해석적 양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더구나 최근의 리얼리티의 내용은 쇼 형식을 접목함으로써 리얼리티의 본질은 퇴색되어지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프로그램의 확대에 따른 저급문화 확산이 사회-문화

적 요인의 부정적인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TV 리얼리티의 수용과정은 일시적, 개인적, 사회-문화적 요인의 해석적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확산에 따른 언어적 해석의 한계성은 언어 중심적인 편견을 탈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지 분석은 시각적 경험에서 비롯되어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해석의 불가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확산에 따라 문화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대립적 상황이 나타나한다는 점이다. 저급문화의 비판적 견해도 불구하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전 세계적 확산과 흥행 성공의 결과는 수용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3. 텍스트 구성 형식에 대한 결과 분석

3.1 <스캔들>의 서사구조 분석: 통합체 분석

이 프로그램의 통합체적 분석의 대상인 등장인물의 구조는 개별 이야기를 밝히는 연결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사건 의뢰의 시작-제작진의 현장 추적 및 상황 포착-사건의뢰인과의 대면을 통한 종말로 이어지고 있다. <스캔들>의 단락별 통합체적 분석 결과는 <표1>과 같이 도출된다.

표 1. <스캔들>에서 나타내고 있는 서사 구조의 특징

정보제공자(의뢰인) ⇨ 제작진과의 만남(사건의뢰) ⇨ 제작진 관찰 및 추적 ⇨ 현장 및 부정적 단서 확보 ⇨ 정보제공자(의뢰인)에게 영상 정보 제공 ⇨ 정보제공자(의뢰인) 및 제작진 대상자 현장 포착 ⇨ 대상자의 불륜 드러남 ⇨ 대면/결별

3.2 <스캔들>의 시퀀스 분석 결과

그레마스의 토도로프 분석의 틀에 의한 <스캔들>의 이야기 구조의 분석결과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의뢰인과 대상자와의 행위의 흐름을 알아내는 것과 동시에 이야기 구조의 전체적인 흐름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퀀스 /관찰/이 대면으로 성취되는 과정 (관찰/추적 vs 대면)

- 1) 의뢰인 - 사건의뢰
- 2) 제작진 - 사건의뢰에 대한 추적 및 현장포착
- 3) 의뢰인과 제작진의 만남 - 현장 영상 공개 및 대면 결정
- 4) 대면의 성취 (현장 포착)

3.3 등장인물의 대립구조

이 프로그램에서 나타나고 있는 등장인물의 대립구조는 사건 의뢰인과 대상자와의 부정성이 개입된 상황에서 두 인물의 대립이 전개된다. 또한 사건 의뢰인과 제작자의 합의에 의해 대상자를 포착하고 추적하는 상황에서, 양자간의 공백을 들여다보는 제작진은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촉매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작진의 관찰과 추적 과정에서 표출되고 있는 관찰자적 양식은 몰래카메라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사건 의뢰인과 제작진의 합의에 의한 관찰과 추적의 상황에서 두 인물의 대립적인 구조의 특성은 대상자의 부정성에 개입된 단서들이 제작진에 의해 포착된다는 점이다. 또한 관찰 기간동안에 촬영된 현장 포착의 근거자료는 의뢰인에게 전달되어, 결국 제작진의 교호 작용에 의해 양자간의 대면으로 내용이 전개 되어진다.

그 결과, 시청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찰자적 양식의 영역보다는 ‘시선’과 ‘응시’의 개념인 훑쳐보기, 즉 관음증으로 이어지는 간접 체험의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대상자의 부정성이 개입된 현장 상황을 통해 시청자의 시선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리고 사실적 접근 기법에 따라 실제 사건이 극화되어 재구성된 상황에서 시청자의 엿보기의 쾌락과 즐거움이 이중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4 서사구조와 재구성 형식 구조

이 프로그램의 서사구조는 도덕적인 관점(moral point of view)에서 벗어난 이야기 구조에서 인간의 대립적인 양면성을 묘사하고 있다. 전체적인 서사 구조를 보면, 사건 의뢰인과 제작자의 합의에 의한 관찰과 추적의 상황을 통해 관찰 대상자의 부정성이 개입된 현상이 포착된다. 또한 제작진은 사건 의뢰인에게 관찰 대상자의 행적을 포착하여 영상을 공개하고, 대면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자간의 결말은 대개 불행한 쪽으로 매듭지어진다.

이와 같이, 이 프로그램의 서사구조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특징인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인간 세계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종수가 <치터스>의 프로그램 분석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마치 대단한 범죄 사건을 추적 하듯이 사건 파일이 이 프로그램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18]. 괄목할만한 대상은 이 프로그램은 도입부에서 “이 프로그램은 현실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페이크 다큐멘터리”라는 자막처리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과 시청자의 공백에 나타나는 현상, 즉 <스캔들>이 생산하는 의미구조가 단지 리얼리티를 지시하는 구조적 특성이라는 점 외에 픽션과 실제 상황에서의 이항 대립구조를 통한 공백

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 등장인물의 대립구조

의뢰인 도덕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묘사	대상자 부정적인 관점에서 묘사(배신 행위:외도, 불륜)
-----------------------------	--------------------------------------

4. 재연 기법과 기술적 표현 방식에 대한 분석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영상 이미지의 구성과 표현 방식은 프레임 안에 다양한 영상 이미지를 배열하고, 공간적인 부분의 활용을 통해 기술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또한 영상 미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장르적 특성에 맞게 이미지를 부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포지셔닝 하여 표현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본질적으로 리얼리티를 강조하기 위해 리얼리스틱하게 보이게 하는 다양한 전달 방식과 재연 방식을 통해서 리얼리티를 강조하고 있다[19].

4.1 프레임

<스캔들>의 기본적인 프레임 구성은 인물의 도상적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리얼리티를 강조하고 있으며, 다큐멘터리의 관찰적 접근 방식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한 재연의 과정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나타나고 있는 등장인물의 재연 상황에 대한 프레임의 구성은 사적인 공간에 끌어들인 감시카메라의 현장성 있는 실제 상황의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는 점이다[20].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인물의 도상적 이미지의 활용은 이야기 구조의 텍스트를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2 프레임 안과 밖의 구성: 리얼리티와 허구의 경계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프레임의 설정은 무엇보다도 리얼리티의 시각적 스타일을 어떻게 강조하느냐는 것이다. 리얼리티의 시각적 스타일을 강조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의 표현 방식은 영상의 미학적인 측면보다는 영상의 구성 형식에 따른 내용이 시청자의 몰입을 유도하게 한다. 프레임 밖의 현실세계의 모습을 재구성하고, 프레임 안에서의 이미지의 작용은 리얼리티의 형식을 빌려 허구의 이야기 구조를 현실성 있게 표현하고 있다. 즉 이 프로그램에서 강조하고 있는 리얼리티와 허구의 경계는 프레임

안과 밖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리얼리티 소재의 교묘한 연출에 의한 재연 리얼리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4.3 카메라 구도와 위치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현장성 있는 카메라의 구도와 접근 방식에 따른 영상 이미지의 전달력은 내용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몰래 카메라 기법의 활용은 재연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현장성 있는 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찰양식에 따른 몰래카메라의 구도와 위치는 대상을 관찰하고 추적하는데 있어서 리얼리티의 직접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뢰인과의 대면에서 나타나는 핸드-헬드 카메라 기법은 현장감 있는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시청자의 관심과 집중을 이끌어 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4.4 편집

이 프로그램의 편집 방식은 설명적 양식과 다큐멘터리의 관찰양식을 적용하고 있다. 먼저 설명적 양식의 편집 방식은 사건 도입부에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화면분할을 활용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의뢰인과 의뢰대상자의 얼굴, 왼쪽에는 의뢰인의 인적사항과 의뢰내용을 표기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에피소드의 관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의 양식인 보이소버 내레이션, 현장음, 자막처리 등과 같은 요소들은 서로 어우러져 리얼리티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룩테이크의 편집 방식은 현장 상황을 포착하고 관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의 사회문화적 확산에 따른 현상을 논의해보고, <스캔들>을 중심으로 리얼리티의 관찰적 접근 방식에 따른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프로그램은 프리드먼이 주장하고 있는 리얼리티가 하나의 현실 모습을 통해 객관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되어진 현실의 모습을 통해서 시청자와의 관계로 형성 되어진다는 논지에 주목하게 된다[21].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대표적인 리얼리티 프로그램 <현장고발 치터스>와 거의 유사한 내용 전개 구성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점은 리얼리티를

표방한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내용 전개 구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진실과 가짜의 형태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리얼리티가 현장성을 중심으로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전개 구성을 이끌어 간다면, 페이크 형식의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 기법을 사용하여 실제 상황을 다루는 것처럼 보여준다. 그로인해, 출연자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가 대부분이고, 내레이션을 통한 상황을 설명, 몰래 카메라 형식을 활용한 추적하는 형식의 카메라 움직임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페이크 형식을 빌려서 갈등과 원인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 구조 형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건 의뢰자와 관련된 불륜의 소재는 이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에 실제 소재를 재구성한 페이크 다큐멘터리라고 자막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시청 환경에서 자막으로 처리된 문구의 이해 없이 시청한다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수용자는 선정성과 관음증을 담보로 한 상업주의적 장르의 발전에 따른 리얼리티가 없는 가짜 리얼리티, 즉 오락의 대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텔레비전의 저급문화의 확산에 따른 파장의 심각성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연구에서,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이 다양한 장르와의 접목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부 선정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묘한 접근 방식에 대해 상업방송의 시청자 확보 위주 전략이라는 비판적 해석이 뒤따르고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텔레비전이 사회적 제도 안에서 공영적인 책무의 원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선정적이고 엽기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저질 프로그램과 저급 문화 확산의 우려를 잠식시키는 진정한 리얼리티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과 사회적 제도 속에서 조화롭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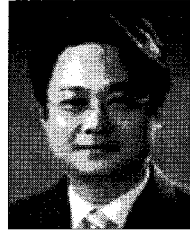
참고문헌

- [1] 이종수, TV 리얼리티: 다큐멘터리, 뉴스, 리얼리티 쇼의 현실 구성, 한나래, p.243, 2004
- [2] 이종수, 위의책, p.253
- [3] 최양묵,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제작론, 한울아카데미, 2007, p.43
- [4] 이종수, 위의책, p.28
- [5] 김예란·박주연, "TV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한국방송학보 2006년 통권 제20-3호, 2006 p.13
- [6] 최양묵, 위의책, p.28

- [7] 로버트 스텐(Robert Steam), 이수길 외 역, New Vocabularies of Film Semiotics, 1992, 어휘로 풀어 보는 영상기호학 2003, 시각과 언어, p.385
- [8] 박주연, “텔레비전 리얼리티 프로그램”, 한국언론재단, pp.40-41 2005.10
- [9] 박주연, 위의책, p.186
- [10] 존A 워커(Walker, John A· Chaplin Sarah),임산 역 (2004) Visual Culture(1997), 비주얼 컬처(이미지 시대의 이해_ 비너스에서 VR까지), 루비박스 p.186
- [11] 마리타 스테르콘(Marita Sturken) & 리사 카트라이트 (Lisa Cartwright), 윤태진·허현주·문경원 옮김, Practices of Looking, 영상문화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6 p.41
- [12] 마리타 스테르콘(Marita Sturken) & 리사 카트라이트 (Lisa Cartwright), 윤태진·허현주·문경원 옮김, 위의책, p.65
- [13] 존버거(Jhon Berger),강명구 역, Ways of Seeing(1972), 영상커뮤니케이션과 사회(1987), 나남출판 p.37
- [14] 박주연, 위의책, p.41
- [15] 존버거, 위의책, p.36
- [16] 더글라스 켈너(Douglas Kellner), 김수정, 정종희 옮김, Media Culture(미디어 문화), 새물결, 1997 p. 1997
- [17] 윌커 크리스티안(Doelker Christian, 1990)/이도경 역 (2001), 미디어에서 리얼리티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p.201
- [18] 이종수, 위의책, p.257
- [19] 이종수, 위의책, p.55
- [20] 이종수, 위의책, p.87
- [21] 프리드맨(Friedman, J), Reality Squard: television discourse on the real, 2002, 박주연, 위의책 재인용 p.37

함 현(Hyun Hahm)

[정회원]



- 1997년 7월 : California State Univ Los Angeles Radio & TV Broadcasting/Film (예술학사)
- 2001년 2월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언론학석사)
- 2002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방송영상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방송영상, 영상커뮤니케이션, 영상문화,